

# 변액연금보험 90%가 갖고 있으면 손해

소비자단체서 60개 상품 조사  
54개 수익률 물가상승 못 미쳐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변액연금보험 10개 중 9개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60개 변액연금보험의 연평균 수익률은 2.06%에 그쳤다. 조사대상 60개 중 54개는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상승률(3.19%)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관계기사 E9면> 최고 수익률은 교보생명 '교보퍼스트우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상위 상품

회사	상품명	실효수익률 (연평균 %)
교보	교보우리아이	4.06
교보	교보100세시대II	3.92
PCA	PCA파워리턴	3.55
PCA	PCA퓨처솔루션	3.55
ACE	ACE Vital	3.15

※은행 판매 상품 제외      자료: 금융소비자연맹

리아이변액연금보험'으로 연평균 4.28%였다.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이다. 설계사가 파는 상품 중엔 교보생

명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06%)이 가장 높았다.

최하위는 ING생명의 '스마트업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으로 수익률이 0.22%에 불과했다. 사업비 등을 빼고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효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따진 결과다. 20만원씩 10년간 총 2400만 원을 냈을 때 수익률 1위는 적립금이 3375만원, 최하위 상품은 2454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펀드 수수료와 수익률을 합산한 운용실적 종합평점에서는 PCA생명 '퓨처솔루션 변액연금'(91.3점)이 1위를 차지했다. 사업

비와 상관 없이 순수한 투자실적만 따졌을 때 가장 펀드운용을 잘했다는 뜻이다. 종합 평점 최하위엔 AIA생명의 'AIA스텝업스 마트변액연금보험'이 올랐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투자형 금융상품이다. 노후 대비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2010년 말 현재 247만 명이 가입해 있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보험 가입할 때 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펀드 수익률과 최저 보증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라"고 조언했다.

한예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 공관 체류 탈북자 11명 전원 한국행 한·중 이미 합의

1차 4명 이어 남은 7명도 곧 입국

주중 한국공관에 머물러 왔던 국군포로 백종규(사망)씨 가족 3명과 미성년자 1명 등 탈북자 4명의 입국은 공관 체류 탈북자 전원의 조기 한국행을 보장하겠다는 한·중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선양(瀋陽)·상하이(上海) 총영사관에 분산돼 있는 나머지 탈북자 7명의 한국행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공관 체류 기간은 9~20여 개월로, 30개월을 넘긴 이번 입국자 4명에 비해 짧다. 선양에 있는 탈북자 2명은 여성이며, 사망한 국군포로 A씨의 며느리와 친손녀(10세가락)로 밝혀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4일 "한·중 양국은 주중 한국공관에 머물러온 탈북자에 한해 조기 한국행을 보장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탈북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탈북자의 입국 문제가 한국 언론에 공개되면서 나머지 탈북자의 한국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탈북자들의 입국도 당초보다 늦춰졌으며, 이는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의 한국 송환이 논의됐다는 게 공개된 데 대한 중국의 불만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제기해 중국이 탈북자의 한국행을 보장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데 대한 부담이다. 외교적 압박에 밀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주중 한국공관 진입-제3국 추방 형식의 한국행'이라는 틀이 굳어지는 것을 막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방지하면 탈북자의 공관 진입 러시가 재발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관 진입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허용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일이 이어질 보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서울=이원진 기자 chky@joongang.co.kr

# “공직지원관실 창설 멤버 이영호가 사실상 다 쫓았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

전 총리실 총무비서관 진술  
검찰, 청와대 비선 여부 조사

2008년 중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최근 검찰에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멤버는 이영호(48)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사실상 다 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설립을 주도했으며 지원관실이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4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총리실 총무비서관 하모씨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지원관실 설립 2개월 전인 2008년 5월께 고(故) 김영철 당시 국무차장이 이인규(56)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5) 총괄기획과장 등이 포함된 지원관실 창설멤버 명단을 쫓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외부 인사들이 많은 건 문제’라고 항의했더니 김 전 차장은 나를 외면하면서 ‘이영호 비서관한테 말해 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씨는 지원관실이 신설되면 정권 교체에 따른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보직을 잃은 총리실 내 유류인력들이 보직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지원관실 보직은 경찰·국세청·노동부·행정안전부 출신 외부 인사들로 충원됐다. 대부분 이 전 비서관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전 지원관은 노동부 출신, 진 전 과장은 노동부와 청와대 출신이었다. 하씨는 김 전 차장 말대로 직접 이 전 비서관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씨는 “김 전 차장 말을 듣고 이 비서관을 찾아가서 ‘내부 사기 문제도 있어서 이런 인선은 곤란하다’고 말하자 이 전 비서관은 짜늘한 태도로 ‘이미 다 짜여진 일’이라고 쏘아붙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원관실은 김 전 차장이 주도해서 설립했고 나는 그와 몇 차례 상의만 했을 뿐이며 하씨와는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날 정경감·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사찰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 18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관봉 5000만원 ... 이것이 사찰 폭로 입막음용 돈다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옛 주사)이 최근 “유총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불법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지난해 4월 받았다”고 주장했던 5000만원. 장 전 주무관이 4일 공개한 사진은 5만원권 100장씩 열 뭉치다. ‘한국은행’이라는 명칭이 적힌 피지가 가로와 세로의 열십자(十字) 형태로 돈다발을 싸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관봉(官封)’의 형태다. 장 전 주무관은 지폐의 일련번호도 공개했다. [사진 오마이뉴스]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

## 지성의 역사, 꿈을 더하다

함께 할 교수님을 모십니다

■ 접수기간 \_ 2012. 4. 16.(월) ~ 4. 25.(수)  
■ 문의 \_ (062) 530-1031-2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nu.ac.kr) 참조

---

‘송실대움을 완성할 최고의 석학을 모십니다’

### 송실대학교 2012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

**초빙분야**


<p><b>정년직 전임교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 독문학</li> <li>·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 위상수학 또는 기하학</li> <li>· 사회과학대학 화학과 - 분석화학</li> <li>· 행정학과 - 행정학</li> <li>· 정치외교학과 - 비교정치</li> <li>·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 경제일반(금융전공우대)</li> <li>·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 마케팅</li> <li>·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 정보전자유기소재</li> <li>·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기반 융복합전공</li> <li>· IT대학 컴퓨터학부 - UI/UX/UI 또는 소프트웨어공학 또는 웹기반 컴퓨팅</li> <li>· 글로벌미디어학부 - 디지털콘텐츠</li> <li>· 금융학부 금융학부 - 재무·금융</li> </ul>	<p><b>비정년직 전임교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 조직신학</li> <li>· 법과대학 법학과 - 민법</li> </ul>
--	--

**접수기간 및 방법**

가. 1차 인터넷 접수기간: 2012.4.12(목) 10:00~19(목) 16:00까지  
나. 2차 서류 제출기간: 2012.5.2(수)~3(목) 16:00까지 예정  
(1차 합격자에 한함) - 1차 합격자 발표 직후 접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처 교무팀(02-820-0141~0142, 01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su.ac.kr**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

## 지성의 역사, 꿈을 더하다

함께 할 교수님을 모십니다

■ 접수기간 \_ 2012. 4. 16.(월) ~ 4. 25.(수)  
■ 문의 \_ (062) 530-1031-2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nu.ac.kr) 참조

---

‘송실대움을 완성할 최고의 석학을 모십니다’

### 송실대학교 2012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

**초빙분야**

<p><b>정년직 전임교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 독문학</li> <li>·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 위상수학 또는 기하학</li> <li>· 사회과학대학 화학과 - 분석화학</li> <li>· 행정학과 - 행정학</li> <li>· 정치외교학과 - 비교정치</li> <li>·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 경제일반(금융전공우대)</li> <li>·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 마케팅</li> <li>· 공과대학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 정보전자유기소재</li> <li>·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기반 융복합전공</li> <li>· IT대학 컴퓨터학부 - UI/UX/UI 또는 소프트웨어공학 또는 웹기반 컴퓨팅</li> <li>· 글로벌미디어학부 - 디지털콘텐츠</li> <li>· 금융학부 금융학부 - 재무·금융</li> </ul>	<p><b>비정년직 전임교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 조직신학</li> <li>· 법과대학 법학과 - 민법</li> </ul>
--	--

**접수기간 및 방법**

가. 1차 인터넷 접수기간: 2012.4.12(목) 10:00~19(목) 16:00까지  
나. 2차 서류 제출기간: 2012.5.2(수)~3(목) 16:00까지 예정  
(1차 합격자에 한함) - 1차 합격자 발표 직후 접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처 교무팀(02-820-0141~0142, 01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su.ac.kr**